

‘영토 주권 수호’ 정치권이 뜨겁다

여야 해병대 주둔·동해 표기 등 실효적 지배 강화

민주 손대표 오늘 독도행 ... 日 침략 전쟁 반성 촉구

정치권이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동해 표기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14일 오전 헬기를 통해 독도에 도착해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기상 악화로 계획을 취소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독도의 해안경비대를 해병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변용진 대표와 김낙성 원내대표의 이날 독도 방문도 기상악화로 취소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독도를 방문, 위령비에 참배하고 ‘독도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최고위원과 정장선 사무총장, 이용섭 대변인, 백원우 의원 등이 수행한다.

독도 성명에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반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손 대표 측근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달 31일부터 3박4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적극 행보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 방침에서 벗어나

정치권에서도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피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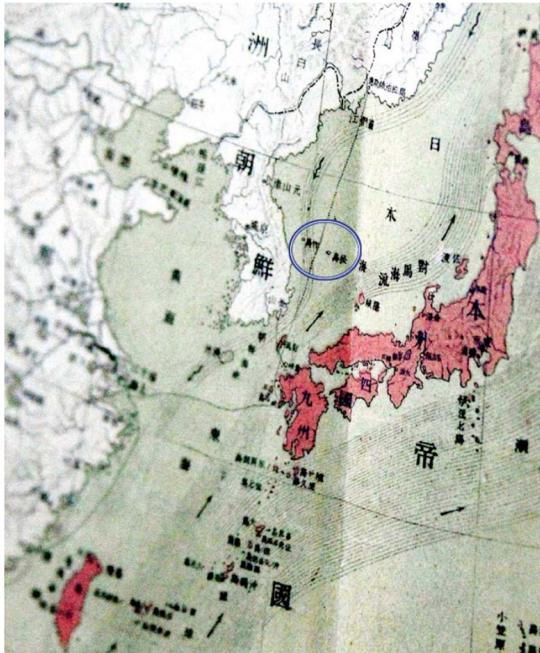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요란한 보여주기식 공세가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실효행사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보다 냉정하게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2일 강원 영월 호아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이 공개한 ‘일본지’다. 1897년 일본 문부성이 검정한 교재 ‘일본지’안에 수록된 지도에는 일본영토와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원인)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는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9C 日 군사용 지도·교재에 독도는 한국 땅

영월 호아지리박물관 공개

일본이 19세기 후반 제작한 군사용 지도와 문부성 검정 교재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영월군 수주면 호아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은 1895년 일본이 그린 군사용 정밀지도 ‘실측 일정한군용 지도(實測 日淸韓軍用精圖)’와 1897년 일본 문부성이 검정한 교재 ‘일본지(日本地誌)’를 12일 공개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그려진 실측 일정한군용지도에는 송도(松島·울릉도)와 죽도(竹島·독도)가 한국 영토 안에 정확하게 표기돼 있다.

양 관장은 1800년대 이후 일본지도에는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리교재로 추정되는 일본지 안에 수록된 지도에는 일본영토와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이 붉은색

으로 표시돼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는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양 관장은 이들 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古) 지도의 제작 비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지도 제작자들은 울릉도 동쪽 먼바다에 있는 독도를 같은 지도에 표기하기 어렵게 되자 독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제작비밀을 모르는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1904년 러일전쟁 전까지 표기 오류를 계속했다고 양 관장은 강조했다.

양재룡 관장은 “일본 일각에서 독도 침탈을 노골화하는 현실에 전 세계를 향해 그들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지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 자료는 물론 많은 지도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청와대 민원인 안내실 연풍문 입구에서 직원들이 독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대형 LED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에 해병대 주둔 시킬까

홍대표 요구에 국방부 “정부 차원 결정하면 파견”

청와대, 독도 실시간 감시 관찰 대형 LED TV 설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독도에 현재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파견한) 1개 소대씩 돌아가면서 독도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 대표는 이어 최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개별 협의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단에서 “국방부 장관은 적

극 환영했고, 외교부 장관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대일 외교에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며, 정부 차원에서 군 병력의 주둔을 결정하면 군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태도 표명은 그간 군이 유지해온 견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7월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일 독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TV를 청와대 내부에 설치했다. 민원인 안내실 연풍문에 40인치급의 대형 LED TV를 24시간 틀어 놓고 독도의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시간대별로 독도의 여러 면을 돌아가면서 비추으로써 누구나 쉽게 독도의 전경을 볼 수 있다.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접근이 쉽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독도를 화면으로나마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 영토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 것이다. 독도에 KBS가 설치한 폐쇄 CCTV 영상을 받아 화면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해표기, 한국해·조선해 등 변경 중장기 검토

외통부, 내년 IHO 총회 때까지는 East Sea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동해 영문표기인 ‘East Sea’를 ‘Sea of Korea’(한국해) 등 다른 표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East Sea가 정식 영문표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영문표기 변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내년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때까지 동해 영문표기인 East Sea와 일본해 영문표기

인 Japan Sea를 병기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1992년 유엔 가입 이후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East Sea를 동해의 영문명칭으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East Sea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기로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명칭의 변경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일단 내년 IHO 총회를 겨냥해 East Sea와 Japan Sea의 병기를 추진할 것이며 이후 상황을 보며 명칭 변경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대신 ‘한국해’ ‘조선해’ 등 다른 표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 “유엔 가입 당시 이미 검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잃어버렸던 역사적인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낭만이 가득한 신비의 섬 제주도

제주 특가상품! (2박 3일) 95,000원~

시간	교통편	세부 일정	비고
제 1 일	09:00 스타페리 전용버스	목포항 출발/ 제주항 도착 제주 현지직업 미팅 후 에코랜드기차여행 -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돌드회기종 열차로 여행하는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핑크기차로 302명의 꽃차와 열차여행을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 속박 및 석식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숙소: 일반호텔	조식 후 서연교/세심 외돌고-동백남굴 울레 트레킹(약 1시간 소요예정) 석부작 테마농장 / 중식 해피타운(중국어, 오로바이스) 로케디오월드/영화박물관(50년대풍) 필수유선: 더-마파크	조식·호텔식
제 2 일	전일 전용버스	숙소: 일반호텔	조식·호텔식
	전용버스	조식 후 민.공예품 전시장 유에리 생대공방/홍대지소 승마, 조랑말 체험 / 홍대지소 제주아트센터(미술관, 분재원 등) 민속보존마을/ 농수산물직매장 해녀촌 필수유선: 삼국지랜드(변경소) 제주항 출발 / 목포항 도착	중식·편식 석식·자유식

※ 상기 일정 및 조식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안내 (합숙기준)

요금	비수기	95,000	2인실 1박당 10,000 / 3-4인실 1박당 5,000 추가
(합숙기준)	성수기	112,800	2인실 1박당 15,000 / 3-4인실 1박당 10,000 추가
			공통사항: 주말(금-일) 출발 10,000원 추가

출발일자 2011. 성시
REMARK 제외기간 11/28~31 2/8/1~3 3/8/13~15
포항사항: 영복선박비, 2박 6식, 일정표상 임종료, 현지차량비, 수송비
불포항사항: 여행자보험, 필수유선, 기타개인임대, 기사사이드팁, 서연교 등등

KTX 타고가는 서울路 gogo~

서울路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 (1박 2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 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자유식
1 일 자	연계차량	남산 케이볼카 탑승(편도 10분소요)-남산타워 전망대 및 서울성곽, 동수대 등 관광(남산타워 전망대 요금별도 8,000원) 청계천 산책(청계광장-오전교-광통교-광교구간 / 약 20분)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경명전-교대전 / 궁궐식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화요일은 덕수궁 교대식으로 대체합니다. 한강 유람선 탑승(상류-동작대교-하류-당산철교 / 1시간소요)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자유식
	2 일 자	연계차량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역으로 이동, 전쟁기념관 관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인사동 명소 둘러보기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제공식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자유식

요금안내 (1박 2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136,000 129,000	140,000 133,000
금/토/일/공휴일	153,000 146,000	157,000 150,000
월~목	131,000 125,000	135,000 12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152,000 145,000
월~목	128,000 121,000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8,000 142,000
월~목	128,000 121,000	128,000 121,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5,000 138,000

※항목: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숙박비(일반호텔 또는 모텔), 광복교관광료, 남산케이볼카(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기사도
※계좌번호: 농협 317-0002-3837-31(주)아름여행사 /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서울路 시티투어 기차여행 (당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 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자유식
1 일 자	연계차량	남산 케이볼카 탑승(편도 10분소요) 청계천 산책(청계광장-오전교-광통교-광교구간 / 약 20분)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경명전-교대전 / 궁궐식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여의도 한강공원 둘러보기 & 한강 유람선 승선 (상류-동작대교-하류-당산철교 / 1시간소요)	자유식
	2 일 자	연계차량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역으로 이동, 전쟁기념관 관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인사동 명소 둘러보기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제공식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자유식

요금안내 (당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86,000 79,000	89,000 82,000
금/토/일/공휴일	88,000 81,000	91,000 84,000
월~목	81,000 75,000	85,000 78,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7,000	87,000 80,000
월~목	78,000 71,000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3,000 76,000
월~목	78,000 71,000	78,000 71,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0,000 73,000

※포항내역: KTX왕복열차비, 시티투어차량,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볼카(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기사도

Arum (주)아름여행사 1577-0419

유남해여행사 1588-7429